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역사적 교훈

장공자 / 충북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현재에 대한 이해는 과거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현재는 과거와 긴밀히 얽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도 과거의 한반도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21세기의 한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아니면 그 이전의 한반도가 어떠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는 19세기의 중엽 이후를 이해할 때, 그 시사하는 바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주변 정세는 매우 복잡해서 쉽게 가름하기 어렵다. 한미, 한중, 한러,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는 물론, 이들 4개 국가들의 상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는 마치 19세기 중엽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상황에 대해 당시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다.

비록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세의 흐름이나 부분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고 본다. 예측의 정확성 정도는 개인도 그렇지만 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만일 19세기 중엽 이후 서세(西勢)의 동점(東漸)이나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의 추이를 꿰뚫어보는 혜안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국권을 상실하는 비운은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상 동일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사건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까닭은 당시 사건의 주역이 현재의 주역과 같지 않기 때문이며, 유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천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들의 기본적인 의식 패턴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는 폐쇄된 지 오래된 은자의 나라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켜 통상하자고 한 병난이었다. 몇 척의 군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은 그들의 무지였고, 전략상 후퇴를 패전으로 알고, 서울의 종로와 전국의 요소에 척화비를 세우고 의기양양했던 것은 조선의 무지요 자만이었다. 1866년의 프랑스 함대와 1871년의 미국 함대의 강화도 전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일본이 사전 준비를

끝내고 행동한 1875년 9월 19일의 강화도 사건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무력 충돌이었다. 왜냐하면 양자간의 현격한 무력 격차는 물론, 정보를 충분히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의 남진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과 중국 그리고 일본 3국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한 중국이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이라는 황준헌의 『사의조선책략』이란 것도 미일의 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졸작이었는데도 1880년대의 조선의 대외 정책이 여기에 준하였다는 것도 모른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였다.

미국이 일본에게 강요하고 그 일본이 조선에게 강요하여 맺은 '병자수호조약'이 불평등 조약인 것과 같이 '한미수호통상조약'도 불평등 조약이었다. 더욱이 서학부재(西學不在)의 상태에서 열린 개국은 처음부터 불평등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불평등 조약이란 타국의 희생 위에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제국주의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엔 상호주의 내지 호혜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관세와 치외법권 나아가서는 식민지의 획득은 강자의 논리에 따른 그 시대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한반도는 결코 자유스럽지 못했다. 참으로 불행한 상황이었다.

이상은 19세기 중엽부터 말엽에 이르는 기간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대략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1백년이 훨씬 지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근대적 의미의 화친이나 수호조약의 중심 과제는 통상이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간에 전개되고 있는 관계 정상화의 중심 과제도 통상에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를 저지하려는 것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시의 조선은 허약하기는 했어도 하나였는데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 다르고, 힘의 논리가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점도 같지 않다. 그래서 협상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모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나 이익과 필요성에 따라 협력하고 대결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는 다르지 않다.

현 주변 4강 관계와 한반도

일찍이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그의 저서 『외교』에서 "21세기의 국제체제는… 최소한 여섯 개의 열강—미국,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아마도 인도—과 다수의 중진국 및 소국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이들 6개의 나라 가운데 유럽과 인도만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도 다양한 관계 설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과거 2천년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경험에 대해 중국인들의 인식은 그들의 경제적 역동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가시화 되는 것만큼 구체화될 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같은 인식이 과거 동아시아에서 누렸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세력이 곧 미국이라고 중국인들은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20세기 초, 러일 전쟁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동진을 막기 위해 일본을 지지했고, 1930년대에 와서는 일본의 아시아 지배를 막기 위해 중국 쪽에 섰으며, 2차대전 후에는 중국과 구소련의 협력을 견제하였는가 하면, 중소분쟁 이후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접근했고, 구소련이 무너진 후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新안보조약'을 체결했다고 믿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분열을 획책했고, 통일을 방해하는 자가 곧 미국이라는 데 있어서도 중국인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공산주의를 단일 블록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중국 혁명을 구소련의 세력 증가로 이해했고, 중국 혁명에 내재된 민족적 요소를 간과한 채, 중국에 대한 극도의 차단 정책을 썼다. 그리고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대만이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핵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다. 비록 미국은 세계 평화와 인권을 내세우면서 개별 국가와 국제 문제에 개입하고 있지만, 세력 균형을 위한 개입이라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한반도 내지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미국의 관심은 이 지역에서의 세력 균형에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중미 관계가 '우호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미국 관계는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간에 점증되고 있는 경제 교류란 것도 표면적으로는 이해와 협력의 증진으로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경제 교류는 민족간의 차이점에 대한 깊은 각성과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낳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중간의 무역 증대는 경제적 이익 외에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다.

일본이 화혼양재(和魂洋才)를 주장하기 전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화혼한재(和魂漢才)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국의 학예를 배우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1854년 미국에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중국보다 앞서 자본주의화에 성공함으로써 늘어난 국력을 가지고 한국을 식민 지배하고 중국을 침략하는 데 사용했다.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부당한 민족적 우월 의식과 편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부당한 민족 의식과 편견은 한국은 물론, 중국의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킬 대로 손상시켰다.

더욱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불신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한일이 화합하고, 중일이 협력하는 일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일 양국의 경제 발전은 군사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고, 그같은 강화는 상승 작용함으로써 화해와 협력보다는 갈등과 경쟁의 길로 내딛게 할 것이다. 더욱이 경제 성장으로 중국이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될 경우, 동아시아에 대하여 전통적인 헤게모니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일 두 나라는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는 관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러일이나 중러 관계도 우호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잠정적인 우호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이거나 실질적인 우호 관계는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세계에서의 지역 정치는 민족성의 정치학이며 세계 정치는 문명의 정치학이다"라고 했듯이 이들 나라들에 내재하고 있는 민족성과 문명은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러시아는 전세계를 커버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기보다는 근접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전력을 관리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일과의 군사적 경쟁 내지 대립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과 전략은 지역 맹주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는 사실은 첨단적인 군사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일본과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동아시아는 물론, 한반도에 대한 특정 국가의 영향력 행사는 이 지역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4강에게는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중국이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러시아와 일본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이 그럴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기본적 전략이란 세력 균형에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그 전략을 수정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전략 목표는 중국의 세력 증대와 일본의 재무장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미일 안보 체제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협력과 견제의 주변 정세와 남북 관계

19세기 중엽부터 지금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 이른바 4강의 관계란 필요에 따라 협력하고, 협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견제와 대결도 불사하는 유동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패권적 지위를 누리는 나라가 있었으나, 그 패권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 까닭은 주변 정세가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안정, 무역 분쟁, 북한의 핵 개발 등 여러 면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 문제는 중국

과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 충돌이라는 극한 상황에 빠져들게 할 수도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이 지역 내지 세계에서 보다 폭 넓은 역할, 즉 일본의 국력에 걸맞은 경제적 · 정치적 · 전략적 역할을 희망하고 있지만,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그렇다 할만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일본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적어도 중국은 일본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중러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중러의 공동 대처를 뜻한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중국과는 민족과 문화면에서 동반자가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대단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국가 사이즈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겪을지도 모를 불안정 상황에서는 개입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 상황은 비단 러시아만이 원치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4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랄 것이다. 모르긴 해도 그들 4강은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통일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한미 양국의 방위조약이 수정되지 않는 한, 그리고 미일 新안보조약이 존재하는 한, 러북 신조약과 중조 우호조약은 존속될 것이고, 그 같은 관계에 있는 4강은 남북 관계의 진전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관계가 어지러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4강의 이해와 관련하여 완속과 향방을 달리하면서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관계는 내재적인 노력과 외재적인 요인에 따라 진퇴를 거듭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한반도 주변 4강의 관계는 그들의 이익과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협력도 하고 대결도 할 것이라는 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남북간의 진전 속도가 그들의 협력이나 대결과 결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남북 관계의 한계이며 제약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금후의 남북 관계는 이러한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진전이 통일로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19세기 중엽 주변 정세에 대한 조선의 무지와 정보 부재가 무위무책(無爲無策)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라는 점에서 과거사에 대한 이해는 오늘의 한반도 주변 정세를 이해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